



원골마을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1리에 속하는 곳으로 충청남도에서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차령산맥, 남쪽으로는 계룡산이 주요 산계를 이루고, 북으로는 천안과 아산, 남으로는 부여와 논산, 동으로는 청양과 예산, 서로는 연기군과 대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전에서 55km, 공주에서 25km, 유구에서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원골마을은 32번 국도에서 사곡면을 지나 유구읍을 가기 전에 공주 동원리 석탑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면 동원1리 표지판과 경지정리가 잘된 논이 길 좌우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철재



아치가 보인다. 길가에 황새 조형물이 보이고, 유구천을 지나는 동원교 앞에는 동원일리(원골) 표지석과 느티나무, 그리고 황소들의 조형물이 농로와 유구천변에 설치되어 있다.

유구천은 금강수계로서 금강 제1지류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구읍 탑곡리, 덕곡리, 추계리에서 시작한 지방2급 하천은 사곡면, 신풍면 경계지점 지방1급 하천이 되고, 우성면에서 금강 본류와 만난다. 유구천은 공주의 3대 하천의 하나로서 물이 맑고 깨끗하며, 수량이 많아 낚시꾼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동원보에는 갈대, 물억새, 부들 등이 많아 주위에 축사가 많은데도 수질을 개선해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자연형 하천을 유지하고 있다.

원골마을은 마한시대부터 마을을 형성하여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백제시대에는 벌

음지현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 때는 청음현에, 고려 때는 공주목 신풍현, 조선시대에는 공주부 신하면에 속하였으며, 특히 조선시대에 동원골이 있었던 곳이라 “동원”이라 불렸으며, 동원리 북쪽에 있는 큰마을로 “원동”이라 불렸으며, 길을 가는 행인들의 편의를 도와주던 고관원이 있어서 많은 행인들이 쉬어 갔던 마을이라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막리, 화암리, 원동의 각1부를 병합하여 동원리라 하였다. 1942년 신풍면에 편입되었다.

이 마을의 전통 무형문화 자원으로서 재미있는 4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 이야기는 “금돼지 전설”로서 못된 금돼지가 도술을 부려 사람을 괴롭히고 부임하는 원님의 자제를 잡아다가 원골 뒷산 굴속에 가둬놓고 일을 부려먹는 못된 금돼지를 힘세고 현명한 원님이 부임하여 꾀를 내어 사로 잡았

생태영농 탐방

다는 전설이다. 동원리 석탑이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설이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원골 사람 제골치기 하듯 한다”라는 속언이다. 어느 날 아버지를 대신해 품앗이를 나간 두 아들에게 한 사람 분의 젓심에 수저만 두 개를 꽂아주자 서운했던 두 아들이 동시에 김메기를 하지 않고 한골을 잡고 둘이 교대로 김을 매 남보다 먼저 나가 쉬곤 했다는 이야기로 자기 할 일만 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 말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송터” 이야기다. 송터란 신풍의 송부자네가 살던 터로서 조선 말기에 전라도에서 과거를 보라가던 무리 중 송씨 성을 가진 이가 병이나 이곳에서 머물며 병을 치료하다가 동행들이 모두 급제하여 떠난 이후에도 아예 눌러앉아 병도 고치고 농사를 지어 큰

부자가 되었다. 이후 떳떳한 부자로 내려 오다가 일제 시대에 큰 불이나 재산이 유실된 후 송씨도 사라져 버렸다. 송씨와 동행한 이들의 자손들이 벼슬을 버리고 독립투사가 되었듯이 송씨의 자손들도 그려 했으리라 라는 후문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가장골의 금단지” 신풍면사무소에서 북쪽으로 1.5km 쯤 떨어진 골짜기 산막에서 살던 이씨가 은행나무 옆에 집을 짓기로 하고 잠을 자던 중 꿈에 금단지를 보게 되었고, 이후 이 서방을 불러 주춧돌을 놓기 위해 땅을 파다가 진짜로 금단지가 나오자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싸우던 중 삽자루에 맞은 이서방이 관가에 고발해 결국 두 사람 모두 금단지를 놓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마을의 유형문화자원으로서는 공주 동원리 3층 석탑과 느티나무가 있다. 공주 동원리 3층 석탑은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의 동원사지에 위치하는 높이 370cm의 삼층석탑으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다. 탑의 구조는 2층의 기단과 3층의 탑신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3층 탑신 및 옥개석,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다.

이 마을의 위쪽에는 수령 350년의 느티나무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탑제를 지내고 있으며, 이때 정주나무(느티나무)에도 함께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1993년부터 예술과 마을 행사를 진행하여 금년으로 10년째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1993년 부산, 경남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마을을 찾아와 마을 거주민 임동식 화가를 비롯한 주민들의 “예술과 원골”이라는 자연미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중단된 행사는 1998년부터 야외의 주도아래 2회, 3회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2000년에는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4회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러 2006년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여 마을의 대외 이미지 재고에 기여하여 마을의 인지도를 높였다.



생태영농 탐방

예술과 마을의 행사는 처음에는 젊은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 점차 마을 주민의 참여가 늘어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예술로 나타나 자연도 작품이고, 일상의 삶도 작품으로 승화되어 “예주농, 농주예”라는 말을 만들어 내어 예술과 삶 그리고 농업이 어우러져 행사는 더욱 풍부해졌으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지역 기업의 후원,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모델로 보여 진다.

그러나 예술과 마을은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행사는 이제 마을 주민 스스로 운영해야 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좀 더 많은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일회성 축제가 아닌 상설 전시로서 사계절 관광과 체험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축제와 마을의 농가소득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을의 주 소득원은 쌀과 표고버섯, 그리고 고추 등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하고, 도시민과 직거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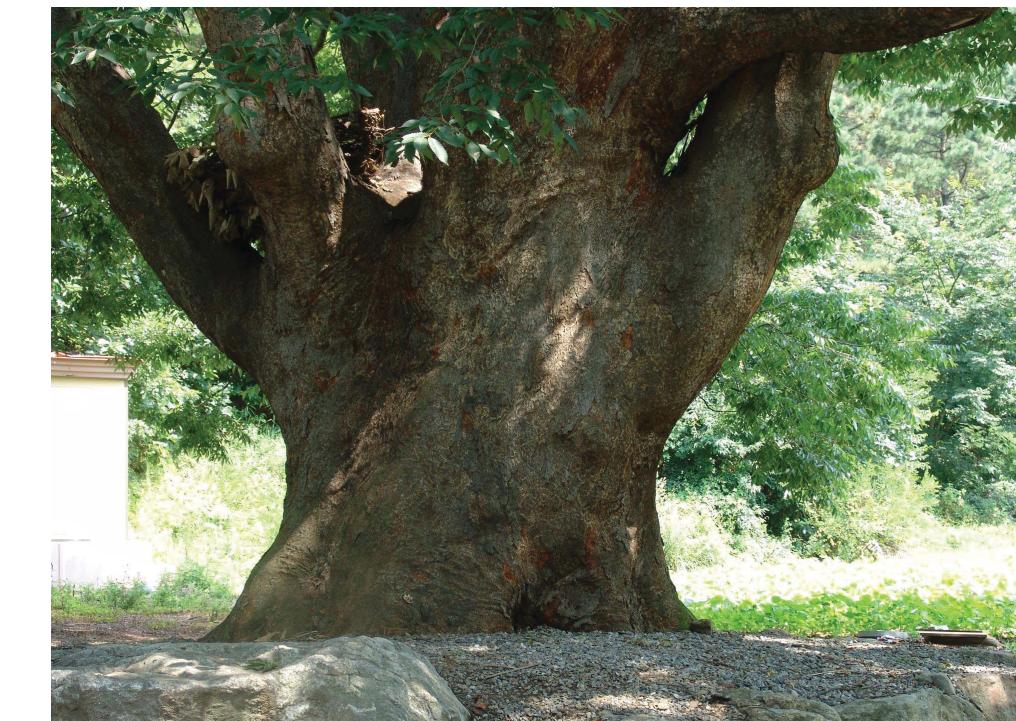
마을의 현황은 80가구로서 농가가 55농가, 비농가가 25가구이며, 인구는 약 200명으로 남자가 90명, 여자가 110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140명으로 이미 노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노령사회는 이 마을의 위기이자 기회이며,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선 위기의 요소

는 전통문화에 대한 보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노령인구의 만족이 곧 마을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노령인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반대로 기회의 요인은 노령인구를 대신할 새로운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유형의 자원(토지, 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지금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을에는 실루엣(백년가야 건물)과 원두막, 자연미술의 집, 목공 체험소(한그루), 베섯저장 창고 2동, 농기계공동보관창고 2동, 마을회관, 마을 주차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실루엣은 마을 동계를 지내는 느티나무 옆에 예쁘게 꾸며진 시설물로서 마을과 약간 떨어져 있어 체험 장소로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회의 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 마을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실루엣과 마을회관을 공유하면서 체류 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연미술의 집 또한 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건물이지만 이 부분은 마을과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목공 체험소(한그루)도 일상적인 체험 장소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 들어오는 외지인은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다. 마을이 발전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공유하는 열린 마음이 요구된다. 도시민의 귀농, 주말농장, 별장

등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들어오는 사람도 공동체로서 그에 맞는 책임이 요구된다. 서로의 벽을 허물 때, 마을은 하나가 되며 발전할 것이다. 달힌 대문은 보이지 않는 장막이다. 그 장막은 마을 공동체를 허물어트리는 위기의 신호이다. 오늘 우리

는 원골 마을에서 농민에 의한 예술, 그리고 예술인에 의한 진정한 예술 사랑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자연과 인간,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야 할 남다른 예술 사랑을 원골마을에서 볼 것이다.



△ 정주나무(350년된 느티나무)

생태영농 탐방



△ 실루엣(백년기약 건물)



△ 밀납인형(오줌싸개)



△ 자연미술의 집,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아트”



△ 영국작가 BEN TAFFINDER의 Bird cages, bamboo and string

원곡마을 연락처 _ “예술과 마을” 운영위원장 조학목 011-422-7494